

목재 흥여하의 양명학 비판 양상 일고

김 희 영*

< 目 次 >

I. 서론	2. 「題陽明集朱子晩年定論後」에 보이는 비판
II. 흥여하의 생애와 학문적 성향	3. 「尊性齋記」에 보이는 비판
III. 흥여하의 양명학 비판	IV. 결론
1. 「題陽明集後」에 보이는 비판	

<국문 초록>

17세기 조선 학계에서는 주자학에 대한 신념을 지닌 성리학자들이 주자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양란을 거치면서 주자학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주자학과는 다른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다양한 학문사조가 유입하는 이 시기에, 양명학에 대해 긍정하는 학자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반양명학에 대한 분위기도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의 비판은 아직 양명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哲理的 주장을 전개한 학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이전에 이황이 남긴 비판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다.

흥여하는 주자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하는 글을 세 편 남겼다. 「題陽明集後」에서는 주자에 대한 학문적 흥미가 드러났다. 이는 그의 학문 성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글을 통해 그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서적을 통한 공부 방법을 은연 중에 드러내어 주자학적 공부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heeyoung0424@hanmail.net

방법을 강조하였다. 둘째,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바람직한 학문방법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자학적 학문 방법을 강조하여 왕수인의 치양지의 학설은 부정하였다.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홍여하가 왕수인을 유가가 아닌 禪家로 보고 있다. 둘째, 주자는 만년에야 비로소 누우치고 깨달아서 자기와 합치된 것처럼 교묘하게 글을 썼다고 비판하였고, 주자가 평상시에 하던 말을 마구 모아두었으니 만년의 정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것에 대해 주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글을 남겨 왕수인을 비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도문학' 한 뒤에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야 '참된 존덕성'이 된다고 하면서 '도문학'을 우선하는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공부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또 주자학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공부의 단계에는 일정한 차례가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고 양명학적 학문방법에 대하여 전면 비판하였다.

「尊性齋記」에서는 주자학의 학문 방법을 '도문학'으로, 육구연의 학문 방법을 '존덕성'으로 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이는 송나라 유학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을 원·명 시기에도 그대로 답습하여 오해가 굳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자의 학문 방법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도문학' 한 쪽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도문학을 먼저 익혀 이를 통하여 존덕성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홍여하는 '육구연이 비록 품부받은 자질이 훌륭한 자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수양하여 덕성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홍여하가 추앙하는 주자마저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학문을 수양하여 그것을 바로 잡았는데, 육구연은 그러한 덕성이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비판하였다.

위 세 편의 글을 통해 17세기에 활동한 조선의 성리학자 홍여하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 논조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목재, 홍여하, 題陽明集後,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尊性齋記

I. 서론

홍여하(洪汝河, 1620-1674)는 17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남인 계열의 학자이다. 이 무렵은 학술적으로는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와 학문적 대립이 본격화 되었던 때였고, 정치적으로는 당쟁과 붕당 정치로 인하여 불안정한 시기였다. 불안정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기득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배 이념이자, 학문관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미 남언경(南彦經, 1528-1594), 허균(許筠, 1569-1618)¹⁾, 최명길(崔鳴吉, 1586-1647), 장유(張維, 1587-1638) 등에 의해 양명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이다. 이처럼 양명학에 대해 긍정하는 학자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反양명학에 대한 분위기도 고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에 양명학이 전래된 이후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남긴 양명학을 비판한 문헌을 통해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양상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양명학 비판의 성격이 어떻게 변모되는지, 그 변모의 흐름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 과제에서는 18인의 인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양명학 비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4개로 나누어 ① ‘비판 대상 불명확’ 시기 → ② ‘비판 대상 명확화’ 시기 → ③ ‘양명학 이해 심화’ 시기 → ④ ‘반양명학 분위기 강화’ 시기로 보았다.

이에 따라 ①과 ②를 고찰하여 김세필, 박상, 이항의 양명학 비판 양상을 살펴보고, ③을 고찰하여 유희춘, 유성룡, 윤근수의 양명학 비판 양상을 살펴보고, 본고에서는 그 후속 작업으로 홍여하의 양명학 비판 문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양명학에 대한 비판 문헌을 남긴 학자들을 찾아 양명학 비판의 흐름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고 17세기 조선에서 양명학

1) 이종호, 「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II)」, 『韓國思想과 文化』 12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참조.

에 대한 비판의 글을 남긴 학자들 가운데 홍여하의 양명학 비판 논조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홍여하는 스무 살에 『彙纂麗史』를 저술할 정도로 역사 방면에 관심을 가졌으며, 문학적으로는 다양한 시를 남기는 등 뛰어난 재능을 보인 인물이다. 학문적으로는 주자학을 신봉하였고, 그의 문집 『목재집』 가운데 주자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하는 글이 남아 있다.

그의 양명학 비판의 논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론에서는 홍여하의 생애와 학문적 성향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목재집』의 자료를 토대로, 양명학 비판 내용이 담긴 세 편의 글을 추출하여 「題陽明集後」,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尊性齋記」를 통하여 각각의 글에 드러난 홍여하의 양명학 비판 논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홍여하의 생애와 학문적 성향

홍여하의 자는 百源, 應圖이며, 호는 木齋이다. 그는 1620년에 洪鎬(洪鎬, 1586-1646)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지냈으며, 명문 사대가 집안이었다. 그의 아버지 洪호에 이어 홍여하 역시 언관으로써의 벼슬을 역임하며 강직한 성품과 충언을 통해 파직되는 등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35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에 나아갔으나, 당쟁이 심했던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37세에 이상진과 이원정을 추천한 일로 파직되었고, 그해 응지상소를 올렸다가 고산도 찰방(察訪)으로 외직을 나가게 되었다. 40세에는 북방 군정의 폐단과 이후원에 대한 붕당의 폐단을 지적하는 글을 써서 당시 서인의 영수(領袖)였던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에 의해 파직 당하게 되었다. 41세 때 결국 유배가게 되었다가 다음 해에 해배(解配)되었다. 이후 그는 고향인 함창 을곡리로 가서 학문과 저술에 전념하며

지냈다.²⁾ 서인 집권기에는 관직에 나가지 못하다가 남인이 집권하게 된 이후 다시 사간의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부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홍여하는 뚜렷한 사승관계 없이 아버지에게 직접 학문을 전수 받았다. 그렇기에 먼저, 홍호의 학문적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³⁾ 홍호는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문인이다. 정경세는 주자학을 흠모하여 이황 - 유성룡의 학맥을 이어 받은 퇴계의 적전(嫡傳)의 학통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하였고, 홍호 또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홍여하도 자연스럽게 주자학에 심취한 학문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가 남긴 글 가운데에서 다음의 글은 홍여하가 중시하는 『사기』와 『춘추좌씨전』 외에도 주자의 註譯을 더할 것을 주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름지기 『춘추좌씨전』·『사기』를 읽어 晦庵의 글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회암의 글을 읽어 六經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야 결단코 서로를 잘못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⁴⁾

이 글에서 알 수 있듯, 홍여하는 『춘추좌씨전』과 『사기』를 읽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자의 글을 읽어서 육경의 뜻을 파악해야

2) 추제협, 「17세기 영남 퇴계학파의 등장과 목재 홍여하」, 『동아인문학』 27호, 동아인문학회, 2014, pp.376-377 참조.

3) 홍여하의 사승관계와 학문적 성향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인수는 류성룡과 정경세, 김성일 등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木齋 洪汝河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 제43집, 2013, pp.27-28 참조).

② 추제협은 퇴계학파의 여러 인물들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특정 사승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17세기 영남 퇴계학파의 등장과 목재 홍여하」, 『동아인문학』 제27집, 2014, pp.377-378 참조).

③ 전제동은 퇴계학맥에서 다소 벗어나 독자적 학문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영남 학자와 기호학자들의 영향을 두루 받았다고 보았다.

(『木齋 洪汝河의 經學觀과 經書 解釋』, 『嶺南學』, 제23호, 2013, p.97 참조).

4) 『木齋集』, 卷4, 「答李九成」: 須讀左馬, 以求晦庵, 讀晦庵, 以求六經, 斷不相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⁵⁾

또한, 홍여하의 경서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주자의 경서 해석이 공맹이 말로 드러내지 못했던 言外之義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더욱 존송하는 태도를 보인다.

聖學의 연원은 열여섯 글자일 뿐이기 때문에 주자는 『논어』의 仁자를 풀이할 때 매 장마다 반드시 天理와 人欲이라는 글자를 썼으니, 천리는 바로 道心이고, 인욕은 바로 人心이다. 『대학』의 첫 장을 풀이하면서 “대개 반드시 천리의 지극함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였고, 『중용』의 첫 장에서는 “천리의 본연을 보존하고 인욕이 장차 싹트려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경문에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맹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것을 자세하게 했으니, 이것은 四書를 읽는 첫 번째 뜻이다.⁶⁾

이 글에 대하여 전재동은 홍여하는 성학(聖學)의 연원이 『서경』의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하여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는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는 16자 심법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인심은 바로 인욕이고, 도심은 바로 천리이므로 대체하여 풀이할 수 있는데 이를 주자가 잘 구현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주자의 경서 해석이 자구 풀이의 정밀함에 성학(聖學)의 연원을 제대로 조명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 주자를 기준 삼아 경전 해석을 풀이하는 데에서 주자학에 경도된 홍여하의 학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 5) 전재동, 「木齋 洪汝河의 經學觀과 經書 解釋」, 『嶺南學』, 제23호, 2013, p.106 인용.
 6) 『木齋集』, 卷9, 「讀書筭記 四書發凡口訣」: 聖學淵源, 十六言而已, 故老先生釋論語仁字, 章章必使用天理人欲字, 天理, 卽道心, 人欲, 卽人心也. 釋大學首章曰, “蓋必有以盡夫天理之極, 而無一毫人欲之私也, 中庸首章曰, 存天理之本然, 遏人欲於將萌, 皆所以發明經文言外之意也, 至孟子尤詳焉, 此四書中開卷第一義.”
 7) 전재동, 「木齋 洪汝河의 經學觀과 經書 解釋」, 『嶺南學』, 제23호, 2013, pp.121-122 인용.

왕수인(王守仁)은 선가(禪家)의 가르침을 깨달은 뒤에, 앞에서는 주자를 높이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배척하였다.⁸⁾

‘왕수인이 선가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부분을 통하여 홍여하는 왕수인을 유가(儒家)가 아닌, 선가(禪家)의 가르침을 깨달은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왕수인의 학문을 선학(禪學)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황(李滉, 1501~1570)의 「전습록논변(傳習錄論辯)」 등의 저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황의 주장은 이후 주자학자들에게 정론(定論)이 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주자학적 학문 성향을 지닌 입장에서 왕수인을 유가가 아닌 선가의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가 양명학에 대하여 비판적 논조를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자학자들이 양명학에 대하여 이처럼 선학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자가 공공의 리(理)에 대하여 ‘정해진 이치 [定理]’라고 이름 붙였는데, 왕수인이 다시 개인적 작위를 넘어선 초월적 권위를 가지고 실천을 주체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자학의 입장에서 볼 때 리(理)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선(禪)은 커다란 이단 사설이기 때문이다.⁹⁾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양명학을 비판하는지 그 논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는 『목재집』을 기본 자료로 하여 홍여하가 쓴 글 중 양명학에 대해 비판한 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8) 『木齋集』 卷6,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陽明悟解禪旨之後, 陽尊晦翁而陰斥之.

9) 아라키 켄고, 『불교와 양명학』, 서광사, 1993, pp.69-70 참조.

Ⅲ. 홍여하의 양명학 비판

1. 「題陽明集後」에 보이는 비판

아래 인용한 시는 왕수인의 문집을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자학의 학문 방법에 반하는 ‘치양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왕과 주공이 복희씨의 과를 연역하였으니
공자는 무엇 때문에 (주역을) 공부하였는가.
주자가 각주를 더한다고 말하였더라면
『十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¹⁰⁾

복희가 64괘를 우주의 원리에 맞추어 배열하였고, 문왕이 각 괘와 각 효에 설명을 붙이고자 하였으나 다 하지 못하고 죽자, 이어서 주공이 『주역』의 과를 정리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성인인 공자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주역』의 설명서 격인 『십익(十翼)]을 쓴 것을 두고 훗날 주자가 『주역』에 설명을 덧붙일 줄 알았다면, 『십익』은 쓸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周易本義』가 『십익』에 견줄 만한 책이라고 은연 중에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의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역』과 관련하여 문왕과 주공, 공자에 이어서 주자까지 성인의 반열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홍여하의 주자에 대한 학문적 흠모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성인이 남긴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에 담긴 내용이 나 뜻을 풀이해주는 또 다른 설명서가 필요하다. 문왕과 주공의 『주역』에

10) 『木齋集』, 卷1, 「題陽明集後」: 文王周公演義書 宣聖何緣著工夫, 若道晦庵添註脚, 十翼可有亦可無.

공자께서 『십익』을 남긴 것이나, 또 주자가 『주역본의』를 남긴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처럼 서적을 통한 공부 방법도 은연 중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주자학에서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면에서 다시 한 번 주자학적 공부 방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자의 학문이 공자에 견줄 만하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바람직한 학문방법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바람직한 학문 방법의 내용을 말하면서 다음 시가 이어진다.

학문의 과정은 단계가 있으니
모름지기 애써 양지를 말하지 말라.¹¹⁾

주자학에서는 학문에 단계가 있다고 말하며, 주자학적 학문관을 지닌 홍여하도 이러한 단계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실현해내는 경지인 '致良知'를 주장하였다. 치양지는 『대학』에서 8조목 가운데 '致知'의 개념에서 제기된 것이다. 왕수인은 '치지'의 '지'가 『맹자』에 나오는 '시비를 가려내는 마음 [是非之心]'을 '앎'이라고 하고 이러한 知를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양지'¹²⁾라고 하였다. 또 그는 만년에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일이 '치지'이다."¹³⁾라고 명확하게 말하였다.

홍여하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반박하는 내용을 드러냈다. 그는 천리가 외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지'의 실현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지를

11) 『木齋集』, 卷1, 「題陽明集後」: 學問工程有階梯, 莫須辛苦說良知, 倘教上乘人人曉, 一貫先將語樊遲.

12) 『王陽明全集』, 「與陸原靜」(二), 壬午, 양명 51세, 권 5, 文錄 2, p.189 : 『孟子』云 '是非之心, 知也.', '是非之心, 人皆有之.'

13) 『王陽明全集』, 권26, 「大學問」: "致知之者, 非若後儒所謂擴充其知識之謂也, 致吾心之良知焉耳."

지니고 있으니, 天下와 古今, 聖人과 愚人의 구별이 없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⁴⁾ 이러한 치양지는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학문 방법인 ‘窮理’¹⁵⁾의 단계가 없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는 것이기에, 흥여하는 이러한 공부 방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써 양지를 말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왕수인의 치양지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흥여하가 남긴 위 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흥여하가 강조한 학문의 순서를 확인하고, 왕수인의 치양지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둘째, 주자의 학문방법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尊德性和 道問學¹⁶⁾ 가운데 배움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도문학’을 중시하는 주자의 학문 방법을 따르는 데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2.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에 보이는 비판

왕수인이 쓴 「주자만년정론」을 읽고 흥여하 쓴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에서도, 그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흥여하는 왕수인이 주자를 배척하는 뜻을 담아서 기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왕수인이 「주자만년정론」을 지은 이유가 학문이 천하의 공론에 수용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4) 『傳習錄』中, 「答聶文蔚」: “良知之在人心, 無間於聖愚, 天下古今之所同也.”

15) 주자는 외부 사물에 내재해 있는 천리를 탐구하는 것을 ‘격물’이라고 보았다. 반면, 왕수인은 리(理)가 이미 내 마음 안에 내재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16) 존덕성과 도문학 - 이는 『중용』에 나오는 것으로 학문 방법의 차이를 말한다. 주자는 욕구연이 오로지 존덕성에만 치우쳐 도문학을 도외시한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두 가지를 잘 겸비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욕구연이 존덕성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문학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불가한 일이라고 하였다.

왕수인은 禪家의 가르침을 깨달은 뒤에, 앞에서는 주자를 높이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배척하였다. 글을 짓고 뜻을 담은 것이 기만하는 공교함과 기묘한 속임수가 그 극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스스로 천하만세의 공론에 수용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에, 주자의 설에서 오로지 尊德性만을 취하고, 별도로 다른 것들을 모아서 「朱子晚年定論」이라 하였다.¹⁷⁾

‘왕수인이 선가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을 통하여 홍여하는 왕수인을 유가(儒家)가 아닌, 선가(禪家)의 가르침을 깨달은 인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수인의 학문을 선학(禪學)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황(李滉, 1501~1570)의 「전습록논변(傳習錄論辯)」 등의 저서를 통해 이미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황의 주장은 이후 주자학자들에게 하나의 정론이 되었다.

홍여하는 왕수인이 「주자만년정론」을 지은 이유에 대해 주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홍여하가 이 글을 비판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왕수인이 자신의 학문은 일찍부터 공자(孔子) 문하의 정통으로 인정을 받았고, 주자는 만년에야 비로소 뉘우치고 깨달아서 자기와 합치된 것처럼 교묘하게 글을 썼다고 보았다. 왕수인이 속임수를 쓰는 자이며, 학문적으로도 孔子의 정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자신의 학문이 일찍부터 孔子 문하의 정통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주자는 만년에야 비로소 뉘우치고 깨달아서 자기와 합치된 것처럼 하였으니, 그 술수를 교묘히 부리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어설픔게 되었다.¹⁸⁾

17) 『木齋集』 卷6,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陽明悟解禪旨之後, 陽尊晦翁而陰斥之. 立言措意, 詭巧奇譎, 無所不用其極. 然自知不容於天下萬世之公議, 則乃取晦翁之說專於尊德性者, 別爲衰類 以爲『晚年定論』.

18) 『木齋集』 卷6,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若以己之學, 早有得於孔門正宗, 而晦翁則晚始悔悟, 而與己合焉者, 則其爲術欲巧而反疏矣.

둘째, 왕수인은 주자가 평상시에 하던 말을 모아두었을 뿐이니, 만년의 정론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만약 왕수인이 힘을 얻은 경험에 대한 부분은 주자가 20세 무렵 이미 경험한 것이며, 왕수인이 여기에 從事한 것을 訖上하여 주자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주자는 ‘만년’이라고 하고, 왕수인 자신은 ‘早年’이라고 하니 오류가 심하다고 보았다.

주자가 남을 가르칠 때에는 상황에 따라 교육의 방법을 달리하여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 왕수인이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주자가 평상시에 하던 말일 뿐이니, 어찌 만년의 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왕수인이 힘을 얻은 곳이 밝고도 신령한 경계라면 주자가 20세 무렵 양껏 이미 경험한 것일 뿐이다. 왕수인이 여기에 從事한 것은 바로 오랑개의 땅에 거처한 후이니 주자와 비교하면 이미 만년이다. 그런데 도리어 주자는 만년이라고 하고, 자신은早年이라고 하니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¹⁹⁾

셋째, 공문의 제자들의 예를 들어서 상지(上知)의 자질이 있는 자라도 널리 공부해야 한다고 하며, ‘도문학’과 ‘존덕성’의 공부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언급한다. ‘도문학’ 한 뒤에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야 ‘참된 존덕성’이 된다고 하면서 ‘도문학’을 우선하는 주자학적 공부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흥여하는 공부의 단계에는 일정한 차례가 있으니, 어찌 갑자기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여 그럴 수 없음을 역설한다.

孔門의 가르침은 비록 顏回가 上知의 자질이 있더라도 반드시 博學을 우선하였다. 曾子의 자질에 이르러서 또한 반드시 일에 따라 정밀하게 살피기를 기다린 뒤에 하나로 꿰뚫는 뜻을 알려 주었으니, 그 이하는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제자의 학문이 석 달을 어기지 않는 이가 있고, 하루나 한 달 정도

19) 『木齋集』卷6,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晦翁教人, 隨方立教, 互有抑揚, 陽明之所哀聚者, 卽晦翁平日之所嘗言者耳, 豈可謂晚年之定論乎? 若陽明之得力處, 昭昭靈靈底境界, 則又晦翁二十歲時, 飽經歷者耳. 陽明之從事於此, 乃在居夷之後, 比之晦翁則已晚矣. 反見謂晦翁晚, 而矜己之早, 豈不誤哉!

머무르는 자도 있다. 공부의 단계에는 저절로 일정한 차례가 있으니, 어찌 그 높고 낮은 것과 서투르고 익숙한 것을 따지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잠깐 사이에, 곧바로 높은 성인 [上聖] 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겠는가

주자의 가르침은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낮고 쉬운 것을 배워서 어려운 것에 이르도록 하게 하되, 우선 道問學에 종사하는 기반 위에서 정밀히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니, 바로 참된 尊德性이 되는 까닭이다.²⁰⁾

그는 주자의 가르침이 '도문학'을 우선으로 기반하여 차례를 가지고 실천하여 '존덕성'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이것이 참된 존덕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문학'과 '존덕성' 가운데 '도문학'을 강조하는 주자의 학문 태도를 본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尊性齋記」에 보이는 비판

본고에서 마지막으로 홍여하가 양명학을 비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저술은 「존성재기」이다. 홍여하가 자신의 집에 '존성재(尊性齋)'라는 편액을 걸어놓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존덕성(尊德性)'을 왜 편액으로 걸어놓았냐고 질문한 것에 대하여 홍여하는 '존덕성'이 육구연의 학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다.

육구연의 학문이 양명학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주자가 성즉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도문학'을 중시했던 것과 달리, 육구연의 사상은 심즉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존덕성'을 강조한 심학이었다는 점에서 양명학과 연결된다.²¹⁾ 그렇기에 양명학 비판 논조에 포함시켜 함께 살펴보았다.

20) 『木齋集』 卷6,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孔門之教, 雖在顏淵上知之資, 必先之以博學. 至於曾子, 亦必待其隨事精察, 而後告以一貫之旨, 則其以下可知矣. 故諸弟子之學, 有三月不違者, 有日月至焉者. 工程階梯, 自有一定之序, 何嘗不問其高下生熟, 立談之間, 便責以上聖地步者哉! 晦翁之教, 必使學者, 下學而上達, 姑先從事於道問學上精思力踐, 則乃所以真尊德性也.

21) 김교빈, 「조선 후기 주자학과 양명학의 논쟁」, 『한국의 사상가 10인 하곡 정제두』, 예문서원, 2005, p.117 참조.

나는 한숨 쉬며 탄식하기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나라 말에 ‘주자 道問學’으로, ‘육구연은 存德性’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元·明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설을 답습하였기에 주자의 도문학이 바로 존덕성이며, 육구연이 존송한 것은 참된 덕성 [眞德性] 이 아닌, 바로 氣質의 性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일찍이 논하는 이들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그대의 논의가 또한 이와 같군요.²²⁾

주희와 육구연의 학문 방법론에서 존덕성과 도문학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는 그들이 설정한 性, 心, 理의 개념에 따라 서로 본체론과 심성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공부 방법으로서의 존덕성과 도문학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양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배움을 귀하게 여깁니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며 분변하여, 성찰하고 사욕을 다스려 자기를 이겨서 감히 조금도 그 공부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 것은 무릇 기품의 어그러지고 편벽된 것을 제거하여 천지의 덕성이 온전하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공자·자사 [子思]·맹자·주돈이 [周氏]·장재 [張氏]·정이 [程氏]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 까닭과 주자 [朱氏]가 도문학(道問學)에 힘쓴 이유가 모두 이러한 일입니다.²³⁾

송나라 말의 학자들이 ‘주자의 학문을 도문학, 육구연의 학문을 존덕성’으로 잘못 이해하였는데 그 후 원·명 시기에도 그대로 답습하여 생긴 오해라고 설명하였다. 흥여하는 공자로부터 맹자, 정자를 거쳐 주자까지 ‘도문학’에 힘썼다는 것을 강조하며, 군자가 배움을 귀하게 여겨서 사색하고 생각하고 분변하고 성찰하여 결국 덕성이 온전해지는 ‘존덕성’으로 완성

22) 『木齋集』卷6, 「尊性齋記」: 余爲喟然歎曰, “否, 不然也. 宋之季, 謬以朱爲道問學, 而陸爲尊德性, 元明之人, 猶襲是說, 不知朱子之道問學, 乃所以真尊德性也, 而陸氏之所尊, 非真德性也, 而乃其氣質之性也, 吾嘗笑之以爲論者之過, 不意吾子之論, 亦似之也.”

23) 『木齋集』卷6, 「尊性齋記」: “故君子貴夫學也, 學問思辨, 省察克治, 不敢少懈其功者, 凡以祛其氣稟虧欠之偏, 而求全夫天地之德性者也, 故孔氏思·孟氏周·張·程氏之所以教人詔後, 朱氏之所以致力於道問學者, 皆是物也.”

되어 가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도문학과 존덕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도문학'에서 궁극적으로 '존덕성'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주장한다.

저 육구연이 남을 위하는 것 [爲人] 과 학문을 하는 것 [爲學] 은 영특하면 서도 뛰어나 높이 千古를 보지만, 덕성의 본체는 이지러짐이 없을 수 없습니 다. …… (중략)

무릇 육구연은 매우 빼어난 자질을 지녔습니다. 그러니 그가 능히 마음을 비워 천하의 이치를 넓히고 기품의 치우침을 구하여 함양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았다더라면, 그 성취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자와 같은 분은 그렇지 않아 품부받은 자질 의 훌륭한함 仁義禮智의 덕성의 본체를 온전히 갖추고, 天地의 中正을 얻었지 만, 오히려 스스로 품부받은 기질이 굳센 [剛] 에 치우쳤다고 여겨 힘써 학문 하여 그것을 바로잡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하였습니다. 학문이 이미 성 인의 경지에 들어갔으면서도 스스로 성인의 성대한 덕 [盛德] 을 자처하지 않 았으니, 이것이 주자가 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주자의 道問學이 바로 참된 존덕성 [眞尊德性] 이며, 육구연이 존중한 것은 德性이라 할 수 없고 바로 氣質 의 性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²⁴⁾

홍여하는 참된 도문학의 경지에 오른 주자와 육구연을 비교하였다. 육 구연이 비록 자질은 훌륭하였으나, 그가 받들고 견지한 것은 바로 품부받 은 재주와 私意를 합쳐 하나로 만든 氣質之性일 뿐이니, 이것은 참된 덕성 본체가 아닌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혹평하였다.

또한 육구연이 비록 품부받은 자질이 훌륭한 자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수양하여 덕성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홍여하가 추앙하는 주

24) 『木齋集』卷6, 「尊性齋記」: 彼陸氏之爲人與爲學, 穎悟超詣, 高視千古, 而德性之體, 不能無虧欠焉. 蓋天資太高, 挾以好勝, 見人議其學, 輒東出西沒以閃避, 私意分數較多, 則於仁之德之性, 爲有虧欠矣. (중략) 夫以陸氏絕倫之資, 能虛心以博天下之理, 而求其氣稟之偏, 涵而揉之, 其所就豈可量乎! 而惜乎其不能也. 若吾朱夫子則不然, 生稟之美, 具仁義禮智之性之全體, 得天地之中正, 猶自以稟氣之偏於剛, 力學以矯之, 以求其所未至. 斯乃學已入聖, 而不自聖之盛德也, 所以爲朱子也. 故曰朱子之道問學, 乃所以眞尊德性也, 陸氏之所尊, 非所謂德性, 而乃其氣質之性也.

자마저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학문을 수양하여 그것을 바로 잡았는데, 육구연은 그러한 덕성이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비판하였다.

IV. 결론

조선의 17세기 학풍을 살펴보면, 성리학 위주의 공고한 학문 사조가 다소 누그러지며 다양한 학문 사조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홍여하는 주자학을 존송하는 학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자의 문장을 읽을 것을 권하고, 주자의 학설을 그대로 따르며 존송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철저하게 주자학에 심취한 학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가 남긴 저술 가운데 양명학을 비판하는 글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그의 문집인 『목재집』에서 이에 해당하는 저술 세 편에 드러난 양명학 비판 논조를 찾아서 분석해 보았다.

「題陽明集後」에서는 홍여하의 주자에 대한 학문적 흥미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서적을 통한 공부 방법을 은연 중에 드러내어 주자학적 공부 방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자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바람직한 학문방법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자학적 학문 방법을 강조하였으며, 왕수인의 치양지의 학설은 부정하였다.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에서는 홍여하가 왕수인을 유가가 아닌 禪家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왕수인이 지은 「주자만년정론」을 비판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왕수인이 학문이 일찍부터 孔門의 정통으로 인정을 받았고, 주자는 만년에야 비로소 뉘우치고 깨달아서 자기와 합치된 것처럼 교묘하게 글을 썼다고 비판하였다. 둘째, 주자가 평상시에 하던 말을 마구 모아두었으니 만년의 정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또 그가 왕수인이 경험한 것을 주자가 경험한 때를 비교하여 計上하면 왕수인이 도리어 만년이라 할 수 있는데도 도리어 주자를 만년이라고 하고, 왕수인 자신은 조년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오류가

심하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문학'과 '존덕성'의 학문 방법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문학' 한 뒤에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야 '참된 존덕성'이 된다고 하면서 '도문학'을 우선하는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공부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자학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공부의 단계에는 일정한 차례가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고 양명학적 학문방법에 대하여 전면 비판하였다.

「尊性齋記」에서는 주자학의 학문 방법을 '도문학'으로, 육구연의 학문 방법을 '존덕성'으로 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송나라 유학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을 원·명 시기에 도 그대로 답습하여 오해가 굳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자의 학문 방법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도문학' 한 쪽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도문학을 먼저 익혀 이를 통하여 존덕성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세 편의 글을 통해 홍여하의 양명학 비판을 살펴보았다. 그의 양명학 비판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학'이라는 등의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점이 없이 매도하는 점. 둘째, '교묘하다', '오만하다' 등의 감정적인 언어를 쓴다는 점. 셋째, 양명학에서의 주요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빠진 채, 부분적으로 비판한 내용이라는 점 등이다. 양명학의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쓴 글은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조선 학계에서 홍여하가 남긴 양명학의 비판 문헌을 통해 양명학 비판 논조를 거칠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민서, 서종태, 송징은 등의 양명학 비판 문헌을 남긴 인물들을 통하여 17세기 조선 학계 전반의 성리학자들의 양명학 비판 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參考 文獻〉

『論語集注』, 전통문화연구회.

『孟子』

『木齋集』

『傳習錄』

『王陽明全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김길락, 『象山學과 陽明學』, 예문서원, 1995.

楠本正繼, 김병화·이혜경 역, 『송명유학사상사』, 예문서원, 2005.

아라키 켄고, 『불교와 양명학』, 서광사, 1993.

예문동양사상연구원·김교빈 편, 『한국의 사상가 10인 하곡 정제두』, 예문서원, 2005.

조현규, 『동양윤리사상의 이해』, 새문사, 2014.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2011.

陳 來, 안재호 역,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2011.

陳 來, 이종란 외 역,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13.

蔡仁厚 지음·황갑연 옮김, 『王陽明 哲學』, 서광사, 2001.

김민재 외, 「양명학의 전래 초기, 조선 성리학자들의 비판적 인식 검토」, 『양명학』 52호, 한국양명학회, 2019.

김용재, 「조선시대 反양명학 문헌 조사 및 추출을 통한 양명학 비판 내용의 성향 분석과 反양명학 사조의 흐름에 나타난 특징 연구 1」, 『양명학』 제31호, 한국양명학회, 2012.

김용재, 「조선시대 反양명학 문헌 조사 및 추출을 통한 양명학 비판 내용의 성향 분석과 反양명학 사조의 흐름에 나타난 특징 연구 2」, 『양명학』 제40호, 한국양명학회, 2015.

김희영 외,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1) : '尹根壽'와 '陸光祖' 간의 「朱陸論難」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8집, 동양철학연구회, 2019.

- 민혜진, 「조선 전기의 이단관과 양명학 비판 연구」, 『한국민족문화』 2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 우인수, 「木齋 洪汝河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 제43집, 한국사상사학회, 2013.
- 이중호, 「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II)」, 『韓國思想과 文化』, 한국사상문화학회, 12호, 2001.
- 전재동, 「木齋 洪汝河의 經學觀과 經書 解釋」, 『嶺南學』, 제2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 추제협, 「17세기 영남 퇴계학파의 등장과 목재 홍여하」, 『동아인문학』 27호, 동아인문학회, 2014.

Abstract

A Criticism of Yang-Ming Studies Mok-jae Hong Yeo-ha

Kim Hee-young^{*}

In the 17th century Jo-seon academia, you can see Zhu-zi Studies who have faith in the subject of the subject ostracizing the subject of studies other than the subject.

On the other hand, after two wars, those who were skeptical of the subject came across a different study from that of the subject. At this time of the influx of various academic thought, the atmosphere for Anti-Yang-ming Studies rose relatively as there were one or two scholars who were positive about it. However, the criticism around this time has yet to be seen by scholars who fully understand Yang-Ming Studies and have developed arguments based on it. Nor can there be any major deviation from the previously criticized discussion left by Lee Hwang.

Hong Yeo-ha left three articles criticizing Yang-Ming studies from the standpoint of Zhu-zi.

In 「題陽明集後」, academic admiration for the Zhu-zi Studies was revealed. This is part of his academic orientation. He claimed following the fact that through this article identified. First, the method of study through books was revealed implicitly, emphasizing the method of study of subject matter. Second, Wang Su-in's theory of Qiyangji [致良知] was denied by emphasizing the method of Zhu-zi' studies by giving legitimacy to the theory that the theory of Zhu-zi's study was a desirable method of study.

In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the following points were found. First, Hong Yeo-ha sees Wang Su-in as a Buddhist, not a Confucian scholar. Second, the Zhu-zi criticized that he was repentant and enlightened in his later years to write as if he had been united with him. He also confirmed his criticism of Wang Su-in by writing in defense of what he saw as the old age's political theory, as he had kept his usual words together. Third,

* Ph.D. candidate of Sungshin Women's Univ. / heeyoung0424@hanmail.net

he emphasizes the study method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ollowing the path of study and inquiry [道問學]" in the subject's study, saying that after "Following the path of study and inquiry [道問學]" you have to think accurately and practice hard to achieve "true Honoring the moral nature [尊德性]." He also criticized Yang-Ming academic methods, saying, "There is a certain turn in the study stage," as Zhu-zi's says, "It is not possible to reach adult status all of a sudden."

In 「尊性齋記」, it was wrong to define the academic method of Zhu-zi studies and the academic method of Yook Gu-yeon's as 'Honoring the moral nature [尊德性]' and to understand it as it was during the Yuan and Ming Dynasties that. Therefore, it should not be understood that the method of study of the Zhu-zi is divided in such a dichotomous way that it is only one side of 'Following the path of study and inquiry [道問學]' and tha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it is learned first and then moved forward to Honoring the moral nature [尊德性]. Hong Yeo-ha also stressed, Yook Gu-yeon must be well-educated and well-groomed even if the qualities she received from heaven are great growth.' Even the Zhu-zi who Hong Yeo-ha praised for correcting his studies in order to fill his own deficiencies, and Yook Gu-yeon criticized him, citing his lack of virtue Through the above three articles, we confirmed the criticism of Yang Ming-hak by Hong Yeo-ha, a Confucian scholar of the 17th century.

【Key words】 *Mok-jae, Hong Yeo-ha*, 題陽明集後, 題陽明集朱子晚年定論後, 尊性齋記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완료일 : 12월 04일, 게재확정일 : 12월 08일

